**용서 받지 못하는 죄 -죽음에 이르는 죄/ 케네스 해긴**



내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 주님은 내가 이 여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에 고지식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나는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왜요, 주님? 나는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말씀에서 이런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1요0516. 만일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빗나감)를 짓는 것을 누가 보거든,

그는 요구할지니,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그분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느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라.

그가 그 죄에 대해 기도해야 함을 내가 말하지 않느니라.

라고 한 것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으며 성경은 그것을 범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 저는 이제껏 이 성경구절에서 죄로 인한 결과가 육체의 죽음이라고 ,

그리고 그가 죄를 범했더라도 그는 구원 받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구절은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뭔가를 덧붙이고 있구나. 네가 만일 요한일서 5장 전체를 읽는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 죽음, 즉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과

그의 사망 곧 그의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하나님이 신령한 계시로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사역 중에 세 번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나 그 여자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 여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께 아직도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있더라도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신약으로

증거 될 수 없다면 환상이나 경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다른 성경 구절을 주어 내가 이 여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증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마 18:16)는

성경 구절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음의 성경구절을 주시고 나와 같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히0604. 이는 일단 한번 빛의 조명을 받았으며,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으며,

성령에의 동참자들로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 (성령의 권능, 뒤나미스: 힘,능력,권능,권력,세력)들을 맛보았던 자들이,

만약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 자신들에게

새로이 십자가에 못박아, 그분을 공개적인 수치에 처하는 것을 알기에, 자신들을 회개에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함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에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죄의 자각

"한 번 빛을 받고"(히 6:4). : 죄를 깨닫고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각"이라고 불렀던 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 죄인들에게 빛을 조명하여 줍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라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눅 15:17).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죄인은 그가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빛을 받고

그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빛을 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나를 맛본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요0316.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매우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자기의 유일하게 낳은 아들을

주셨음이니, 이는 그분 안에서 믿는 누구든 소멸하지 않고, 대신에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자신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알게 된 것이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죄의 자각"을 한 사람은

아직 하늘의 은사를 맛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히브리서 6장 4절은 "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고 말합니다. ; 구원받음

"내가 바로 하늘의 은사이다"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왕과 구원자로 받아 들여 영생을 얻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은사를 맛볼 수 없다.

롬0622.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되게(엘류데로오:자유롭게 하다,책임에서 면제되다,해방하다)

되고, 또 하나님에게 종들로 된(둘로오:노예로 삼다,예속시키다,종이 되다,종으로 삼다) 지금,

너희는 거룩(하기아스모스:정화,청결한 상태,거룩,성화,깨끗)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롬0623. 이는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카리스마:신성한 선물,구속,영적인

증여,자질부여,신비한 능력,값없는 선물,부여된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생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입니다(히 6:4). ; 성령세례

예수님은 이것은 거듭난 것 이상이고,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알아진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16-17).

요1416.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간청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

 ('paraclete'; 옆에서 돕는자,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 변호자, 능력 주는자, 비상 대기자)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머물 것이니,

요1417.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이시라, 그를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그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라,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또 너희 안에 계심이라.

이것은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행 1:5: 2:4).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입니다(히 6:5).

예수님은 이것은 유아기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것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유아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신령한 젖"을 먹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벧전0202. 갓 태어난 아기들과 같이 말씀의 진솔한 젖을 바라라. 만일 주께서는

은혜로우심을 너희가 맛본 것이 사실이면, 너희가 그 젖으로 자랄 것이니라.

다른 번역본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의 단단한 고기"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갓난 아기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단단한 고기를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젖만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영적인 성장을 한 사람만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단단한 고기의 맛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성장과 육체적인 성장의 유사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갓난아기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만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눅2334.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여, 그들을 사면(용서)하소서, 이는 그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고, 제비들을 던지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다섯 번째 조건은

사람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입니다(히 6:5) ;  영적인 은사

예수님은 나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영적인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영적인 은사가 그들의 삶이나 사역에서 역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와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은사들은 오는 세상의 우리의 성실한

유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엡 1:13,14; 고후 5:5).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성경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주 적은 숫자의 믿는 자들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에서 본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여자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할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빛이 비추어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구세주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천국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그 여자의 구세주였습니다.

그 여자는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 그 남편과 같이 오랫동안 사역을 해 왔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충분히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여서 더 이상 말씀의 젖만 먹는 영적인 갓난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삶에서 영적인 은사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모든 성경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그냥 유혹을 받고 마귀로부터 정복을 당했다면

얼마든지 용서를 했을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살려고 집을 나왔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100명의 남자들과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돌아서서 회개만 했더라면 용서하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가 유혹에 의해 또는 정복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의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예수님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 즉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어떻게 했느냐가

그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여 의지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므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중심적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귀신들릴 수 있습니까?"라고 물을 때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이미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계속하여 마귀에게 순종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결국은 이 여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점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와 같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은 다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시점에서 그들은 점령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자가 마귀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을 때

그 여자는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0831. 그때에 예수께서 그분 위에서 믿은 그들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니라,

만일 너희가 내 말 안에 계속 머무르면, 그 경우에는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하여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다른 말을 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거듭난 증거는 아닙니다.

다시 거듭나고 재창조된 영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 없다면

나는 그들의 원의 경험에 대하여 심각하게 의심을 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아무 이름이나 붙일 수 있지만

그렇게 붙인다고 해서 그들이 그 이름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여자가 그녀의 남편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사람은 모든 종류의 마귀의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정말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행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의 빛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마귀를 좇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환상에서 예수님은 내게 히브리서 10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히1026. 이는 만약 우리가 진리(진실)의 지식을 받은 후에, 우리가 고의로(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들에 대한 더 이상의 희생제물은 남아 있지 않으며,

히1027. 대신에 대적들을 삼켜버리는 심판과① 불타는 의분(義憤)을② 확실하고 무섭게

바라보는 것이 남아있음이라.

히1028. 모세의 법을 얕보았던 그가 둘 또는 셋의 목격자들(증인들, 증언들) 아래서

 긍휼(오이크테이로:동정,자비,연민) 없이 죽었느니라.

히1029.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서 짓밟았고①, 그가 그것으로써 성화(따로 떼어 성별함)

되었던 혈약의 피를 거룩치 않은 것으로 여겼으며②, 또 은혜(호의)의 성령께 무례(모욕)를

행했던③ 그가 얼마나 훨씬 더 비참한 처벌에 합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너희는 상상하느냐

"이 성경구절이 말하고 있는 죄는 내게 등을 돌린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죄이다"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서 죄는 아무 죄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아무 죄나 말하는 것이라면

요한일서 1장 9절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공의로우시므로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요010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신의가 두터우시고 적법하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시고, 또 온갖 '법적으로 깨끗치 못함'으로부터

우리를 씻어 깨끗이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6절의 죄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나는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은 이 구절을 히브리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 원칙들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려움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도록 많은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배척을 당하고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뭉쳐서 서로를 돕고 있었지만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커다란 핍박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은 그 전의 유대교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일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되돌아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예수가 처녀로부터 잉태되었다는 것을 부인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갔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히 10:29).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의 피는 다른 어떤 사람의 피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죄를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예수님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숙한 믿는 자가 자신의 의지로 신중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들의 죄를 위해 더 이상 희생은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됨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의 심령으로 믿고

당신의 입으로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이시며 구세주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롬 10:9-10).

그러므로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삶에서 짓는 다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단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관하여 큰 혼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정신병원이 사단에 의하여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고

강력하게 설득을 당한 믿는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단은 히브리서의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무지한 것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의지적으로" 죄를 지었으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고 말함으로 그들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철회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너무 큰 협박 때문에 믿음을 취소하였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여 취소하였다면 물론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환상에서 이 여자가 히브리서 10장 26-29절의 구절들을 바탕으로 하여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여자는 의지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짓밟고 그의 피를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29절).

그러므로 그 여자의 죄를 위해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에게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를 짓밟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처녀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그의 피가 부정하다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완전히 예수님을 부정하였습니까?"

이런 모든 질문에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

"그렇다면 그 구절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나는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사람들을 이용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다섯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리고 의지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혹은

"나는 예수를 더 이상 원치 않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갓난아기 그리스도인들은 화가 나서 혹은 성격이 불 같기 때문에

혹은 정열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런 죄를 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성경은 의지로 의식적으로 하는 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였든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방황했던지

만일 그들이 화가 났을 때 예수님께 반대하여 무슨 말을 했더라도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잘못된 것에서 돌아선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죄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일 1:9).

1요010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신의가 두터우시고 적법하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시고,

또 온갖 '법적으로 깨끗치 못함'으로부터 우리를 씻어 깨끗이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에서 멀어졌으면

당신은 될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주님과의 교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이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면

마귀는 당신의 삶을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요 10:10).

사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는 두 가지 형태로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계속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은 다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일에 대하여

그들을 더 이상 다루시지 않습니다(창 6:3).

창6;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성

숙한 그리스도인이 의지로 신중하게 생각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이 여자가 어떻게 될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영원토록 유황불 못에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상에서 나는 그 여자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또 그녀의 끔찍한 울부짖음도 들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또 다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를 오랜 시간동안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하여 성령의 다루심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상 그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내게 그가 거듭났었고 설교하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자신이 말을 했지만

그는 설교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으로부터 떠나 교회 가는 것도 그만 두고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님에 대하여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죄에 깊이 빠져 있었고

당신이 말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이란 나쁜 일은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주님에 대하여 말할 때, 그는 울며 확신 때문에 떨었습니다.

나는 계속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를 권면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나를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계속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날 밤, 나는 그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너무 실제와 같아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주님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에게 설교하라고 소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고

탕자같이 당신께 다시 돌아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내게 그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는 죽어서 지옥으로 갈 것이다!"

나는 그것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약에서 에브라임에 대하여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너는 내가 '에브라임을 그냥 놔두어라. 그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그냥 놔 두어라.'

라고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왜 그렇게 말했겠느냐?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그의 우상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이다(호 4:17).

호0415. 이스라엘아, 비록 네가 창녀짓을 할지라도 (자나: 간음하다,우상을 섬기다,

창녀,창녀짓하다,창녀가 되다), 그럼에도 유다로 하여금 범죄하게(아솸; 죄있는,벌받다,

분명히,멸망하다,황폐해지다,파괴하다,유죄로 되다,범죄하다) 하지 말라,

너희는 길갈에로 오지 말고, 또한 너희는 벧아웬에로 올라가지도 말며,

또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노니"라고 맹세하지도 말라,

호0416. 이는 이스라엘은 뒤로 물러나는 젊은 암소와 같이 뒤로 물러남이라,

이제 여호와가 그들을 넓은 곳에서 어린 양과 같이 먹일 것이니라,

호0417. 에브라임은 우상들에게 합류되었느니라, 그를 그냥 놔두라,

호0418. 그들의 마시는 것(쏘베:마시기,포도주,대 주연,마시다,취한)은 시큼하니라 (쑤르:

쫓아버리다,데려오다,기울다,떠나다,지나가다,반역하다,시어지다,물러나다), 그들은 매춘을

끊암없이 저질렀느니라,

수치를 지닌 그들의 지배자들은 사랑하느니라, 너희는 (그들을) 내놓으라.

호0419. 바람(루아흐)이 그 날개들 안에 그녀를 묶었느니라(짜라르:꺾쇠로

죄다,괴롭히다,고통,포위하다,묶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희생제물들 때문에 부끄러워 하느니라.

너도 이 사람을 그냥 놔 두어라."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의 우상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귀에게 문을 넓게 열었고 주님은 그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후로 그에 대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주님은 내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나이는 55세 쯤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친척에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다고 그들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때는 그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당신이 마귀에게 문을 넓게 열고 죄 짓는 것을 계속하여

고집하면서 절대로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영역에 거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여서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기 원하는 곳에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 죄로 빠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일 믿는 자들이 사단의 영역에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무엇을 하는데 냉정해져서 신중하게 무관심해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고의적이 아니지만, 가끔 넘어지고 죄를 짓는

믿는 자들과 또 의지적으로, 신중히 그리고 지속적인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나는 1945년에 텍사스 서부지방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이사 한 분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긴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교회의 전임목사가 그 건물을 지었고,

이곳 15,000명의 도시에서 30년간 목회를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내를 떠나 이 작은 도시에서 다른 여자와 만나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을 때는

그 전임목사가 다른 여자와 함께 그 교회를 떠난 지 수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목사가 떠난 후에는 매년 다른 목사가 오지만 한 일년 쯤 있다가는

또 떠나버리곤 했습니다.

교회는 그 전임목사가 다른 여자와 도망간 것 때문에 생긴 나쁜 소문을 소멸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전임목사는 아직도 같은 도시에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 그는 도박장을 운영하며

그 외에도 옳지 않은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해긴 목사님, 한 3주쯤 전 주일날 아침 그 전임목사가 갑자기 교회의 주일예배에

온 것입니다.

교회의 한 여자가 공중에서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임목사가 일어나서 방언 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한 일일까요?"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구약에서 사울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 멀어졌을 때

선지자들과 함께 하면서 대언하기 시작(사무엘상 19장을 읽어보십시오)했다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합니다(롬 11:29).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죄를 눈 감아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통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말해주십시오."

그 이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처음 부분은 기억할 수 없지만 끝은 이렇게 맺었어요.

‘이것이 너를 마지막 부르는 소리이다. 나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전임목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은지 한 3년쯤 되는 때였습니다.

그 이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 통변을 마치자 큰 소리로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은 지옥에나 가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돌아서서 교회에서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임목사가 그 메시지를 통변하면서 '이것이 너를 부르는 마지막 소리이다. 너의 마지막

기회이다' 라고 한 것이 옳은 통변이었습 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초자연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영으로부터 성령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통변은 몸 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그에게 주어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통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결정을 하고 그리스도를 그의 의지로 신중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주님은 내게 "내가 마귀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믿는 자들이라도 그들이

허락만 한다면 사로잡는지를 보여 주겠다" 라고 말함으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마귀가 당신의 마음에 먹이는 것을 다 듣고,

그의 생각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의 암시를 따르고 있다면

당신은 상당히 위험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생각하므로 당신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 놓는다면,

그가 곧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그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들의 생각에서 마귀에게 어떤 자리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엡 4:27)고 말하고 있습니다.

엡0427. 또한 마왕에게 자리을 내주지 말라.

그것은 믿는 자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들을 잡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귀에게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사단으로 그들의 생각을 주관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 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단으로 왕 노릇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도 침범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사단도 우리의 의지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마귀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므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그의 생각의 먹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 위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권세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생각을 하므로 우리의 생각의 문을 마귀에게 닫아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단에게 어떤 자리도 내어주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의 지체들로서 강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Tags

복수 사면 용서